

STORY 황인의 '예술가의 한기'

김환기·백남준 진가 알아본 정기용, 손수 장본 미식가

황인
미술평론가



작가와 컬렉터 잇는 갤러리스트
김중영 조각품도 첫 본격 수집
현대미술·고미술에 두루 정통
경동시장서 작품 찾듯 시금치 골라
인천 출신답게 미식가 DNA 자랑
겸약·호사 오가는 소확행 실천자

감성을 가지는 우선으로 여기는 미술계에는 미식가가 많다. 미술인들은 열이면 열, 최고의 미식가로 정기용(1932-)을 꼽는다. 미식가 이전에 그는 최고의 갤러리스트이기도 하다. 어느덧 이 땅에도 근대적 의미의 회랑의 역사가 출발한 지 꽤 됐다. 파리에 입체파를 키운 불세출의 화상(갤러리스트) 칸바일러(1884-1979)가 있었다면 이 땅에는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명동회랑의 김문호, 단색화 등 현대미술을 국내 미술



왼쪽 건물 2층이 정기용의 인사동 원화랑 자리. <사진 황인>

의 주류로 부각시킨 현대회랑의 박명자. 도널드 저드를 유치한 인공회랑의 황현욱, 모범적인 작품 기증을 실행한 부산 공간회랑의 신옥진 등 미술생태계를 풍성하고 기름지게 만든 화상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기용이란 존재가 당연히 선두를 장식해야 하지만 그의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은 미술계에서 의외로 적다. 정기용과 그의 원화랑을 안다고 한다면 어지간한 공력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미술계 내부의 깊이는 사정까지 정통한 전문가라고 봐야 한다. 분명한 건, 칸바일러에게 파카소가 있었다면 정기용에게는 김환기, 백남준, 조각가 김중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84년 원화랑서 백남준 국내 첫선
정기용은 김환기의 부인인 김향안의 신임을 얻어 뉴욕에 있는 김환기의 많은 작품을 서울에 소개했고 필경에는 부암동 환기미술관의 개관에 큰 힘이 지 보태었다. 백남준과는 생일이 하루 빠른 동갑내기다. 1983년 파리의 화가 김장렬의 아파트에서 백남준, 정기용, 박명자, 화가 정성화 등이 모였다. 84년 정초에 현대무용가 머스 케닝햄,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 등과 워싱턴 소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백남준이 호소했다. 정기용이 세 사람의 판화를 다량 사 주어 자금이 일정부분이 해소됐다. 84년 2월 백남준을 비롯한 이들의 판화 3인전이 원화랑에서 열렸다. 백남준의 미술작품이 국내에 전시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전적인 교양이 몸에 밴 현대조각가 김중영의 진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는 그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컬렉션을 한 것도 정기용이 처음이다. 정기용은 작품을 자주 팔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다.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뛰어난 역량의 개성적인 작품을 남들보다 빨리 컬렉션을 하여 진득하게 묵혀 두는 걸 선호하기에 그를 화상이 아닌 컬렉터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인사동 사거리에서 낙원상가로 빠지는 길 오른쪽 2층의 원화랑은 거인의 화랑치고는 너무나 협소했다. 전시공간은 10평을 겨우 넘길 정도였다. 국내의 저명한 미술가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전시를 갖기를 희망했다. 장 푸르니에 화랑은 파리의 68학생운동 즈음에 미술운동 슈포르 슈트라스를 이끌었다. 화상 장 푸르니에(1922-2006)와 슈포르 슈트라스의 화가 클로드 비알라(1936-), 피에르 뷔라글리오(1939-)는 정기용과 호흡이 적격 맞았다. 남치는 표현을 자제하고 자그마한 아름다움의 발견에 감화하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닮았다. 서울과 파리, 남프를 오가며 우정을 나누었다.

비알라는 남프랑스 남프의 투우박물관 관장도 겸했다. 서울을 방문하면 정기용과 함께 장안평 공동품 상가로 가서 위닝, 코푸레 등을 사서는 프랑스로 가져갔다. 정기용은 특이하게도 고미술과 현대미술 모두에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가진 국내 유일의 화상이었다. 고교생 시절부터 고미술 수집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키워 왔다. 서울대 불문과에서 서구



1 정기용과 프랑스 화상 장 푸르니에. 파리 장 푸르니에 갤러리, 1995년. <사진 임영규> 2 백남준(가운데)과 함께한 정기용(왼쪽). 오른쪽은 현대회랑 박명자. 3 정기용과 예술인들. 오른쪽부터 심문섭·박서보·정기용·도진규·이우환·김장렬·박명자·김서보. <사진 현대회랑>

의 교양을 익혔다. 김환기가 백자의 취향 속에서 세계 보편적 미감을 일구어 나갔듯, 정기용도 골동의 낡은 시간 속에 숨어 있는 인류의 보편적 미감을 건져 내어 국제성을 지닌 현대미술로 시공간을 확대했다. 원화랑 근처의 골목에는 아침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지는 이동이발관이 있었다. 이 골목이발관의 단골이자 애호가인 정기용이 하얀 이발 가운을 쓴 채 양전하게 나무 의자에 앉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멍때리는 모습을 띠는 모습은 인사동의 풍경 소품이 됐다.

정기용은 평생 자가용과 인연이 멀었다. 한때 잠시 자동차에 기사를 둔 적도 있었지만 걷기를 좋아 하는 그에게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결국 포기했다. 양복저고리 속에 버스표를 잘 접어 넣는 한 장씩 잘라 내어서 쓰는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지금도 버스와 지하철이 그의 이동수단이다. 두 발로 걸어 다니며 길 위에 펼쳐진 변화무쌍한 세상을 구경하며 날마다 바뀌는 공기를 만끽할 줄 아는 천성에는 도시의 산책자, 플라뇌르가 딱 어울렸다. 인천 출신답게 그는 생애적인 미식가였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식가로 '먹는 재미 사는 재미'(1989)의

저자인 의학박사 신태범(1912-2001)이 있다. 청년 정기용의 결혼식 주례는 신태범이 맡았다. 신태범, 미술평론가 이경성 등과 함께 정기용은 인천 미식문화의 유전자를 충실하게 공유했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찍부터 인천 남자에게는 손수 장을 보러 다니는 문화가 있었다. 정기용은 가정비가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청량리 경동시장을 자주 찾았다. 박수근의 그림 속 주인공처럼 좌판을 펴고 나타난 할머니 행상에게서도 용케 훌륭한 식재료를 구해 낸다. 시금치 한 단을 사더라도 발품을 팔아 경동시장의 수많은 가게 중에서도 최상의 물건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하는 걸 보람으로 삼는다. 그에게는 좋은 그림 하나를 발견하는 일과 좋은 시금치 한 단을 구하는 일은 다르지 않다.

국내에 소들리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80년대에 이미 외국인에 관해선 거의 국내 최고의 지식과 미각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가의 최고급 와인을 마실 때도 있지만 기막힌 안목으로 만원대 칠레산 중저가 와인에서도 명품을 발견해 내기도 한다.

구수 앞둔 지금은 칠레산 와인 즐겨
사람들을 모아 한 시간이나 차를 타고 의정부 도축장 부근의 식당에 가서 서울 도심보다 싼 가격의 등심, 간첩념, 특수부위에 고급와인을 마시는 호기를 부릴 때도 있었지만 정기용의 미식은 만만전석의 스타일은 아니다. 소박한 백반집에서 외외의 알찬 반찬 하나를 발견하는 걸 더 좋아했다.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에도 감사한 표정으로 와인 한 잔, 커피 한 잔까지 천천히 음미하며 즐긴다. 남기는 건 없다. 어쩌다 설빙빙지 하나라도 남으면 챙겨서 파리의 숙소로 가져가 활용한다. 편향된 호사를 과시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적은 돈과 성실한 노력으로 신기한 것과 맛있는 것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소확행의 실천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겸약과 호사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초월을 향했다.

절약이 몸에 밴 생활이지만 그림을 살 때는 통이 컸다. 그렇게 산 아파트 몇 채 가격의 작품들을 미술관에 기증했다. 그의 과묵한 체질이 언제 어디에 무얼 기증했는지를 모르게 했다.

현대미술의 국내 소개만 해도 바벌 터인데 왜 고미술까지 그리 열심히 연구하는지에 대해 후학이 물었다. 정기용 할, "이게 옛날 옛적 골동품으로 보이지만 당대에는 최첨단의 현대미술이었던." 인류의 끈질긴 욕망인 미술의 정체는 고미술과 현대미술이라는 극단의 두 지점을 관통하는 가나긴 시간의 축 위에서 비로소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구수를 바라보는 지금은 그 시간의 촉마저 허물고 은거에 들어갔다. 가끔 산책을 겸해 칠레산 와인을 사러 나간다. 소파에 앉아 젊은 날, 자신과 함께 했던 작가들의 몇 개 남은 작품을 보는 게 낙이다. 허물어진 시간의 축이 뷔라글리오의 작품 속 푸른색 유리를 통과하자, 미세한 가루로 부서져 드디어 맑고 투명한 허공이 됐다. 그의 노경이 꼭이 됐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굴정전골, 무침조림 예약주선 각종도민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나주터미널옆) 미세먼지 걱정특!! ☎ 061)333-4514, 010-3620-7268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업가제공 ☎ 061)285-0444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양초 판매 ☎ 061)334-0088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계순남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 062)652-456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계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점동 양방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